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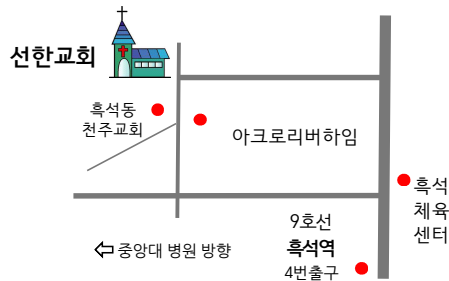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
| 주 일 예 배  | 1부 주일 오전 9:30          |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                        |
|          | 2부 주일 오전 11:00         | 믿음의 씨앗 (유아부)    |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
|          | 3부(청년) 오후 1:00         | 선한 꿈 (유초등부)     |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
| 오 후 예 배  |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 파워틴 (청소년부)      |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
|          | 수요일 저녁 7:30            | 청년부             |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
| 수 요 예 배  | 수요일 저녁 8:30            | 비전워십            |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
| 금 요 기도 회 | 월-금요일 새벽 5:30          |                 |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
| 새 벽 예 배  | 셀별로 정한 시간              |                 |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
| 셀 가족 모임  |                        |                 |                        |

## 섬기는 분들

|         |           |           |                      |
|---------|-----------|-----------|----------------------|
| 사 역 자   | 담임목사 임춘배  | 국내선교사     | 오인숙, 한배선             |
|         | 교육목사 정용준  | 협력교회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
|         | 협동목사 홍진표  |           |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
|         | 교육전도사 윤영  |           |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
|         | 협력전도사 오효남 |           |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은 퇴 장 로 | 고상돈, 김대희  | 해외협력선교사   |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
|         | 박희태, 유신웅  |           |                      |
| 장 로     | 조윤익       |           |                      |
|         | 편도선 (집사장) | 관 리 장 로   | 손석규                  |
|         | 박영근, 윤호중  | 500/50 교회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조계승, 이태수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채세욱 예배  
에버이 / 스승 / 목회자 주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 13:1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            |   |                               |                  |
|------------|---|-------------------------------|------------------|
| 주 일<br>예 배 |   | 오전 11:00                      | 인도: 임춘배 목사       |
| 기          | 원 | 인도자                           |                  |
| 찬          | 양 | 과                             | 경 배              |
| 교          | 독 | 문                             |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
| 찬          | 양 | 과                             | 경 배              |
| 기          | 도 |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             |                  |
| 성          | 경 | 봉                             | 독                |
|            |   | 요한복음 14장 1~3절, 히브리서 13장 13절   |                  |
| 설          | 교 | 고우잉 홈(Going Home)<br>(김상헌 목사) |                  |
| 헌          | 금 | 헌금송 : 청년부                     |                  |
| 환          | 영 | 및                             | 광 고              |
| 파          | 송 | 의                             | 노 래              |
| 축          | 도 | 임춘배 목사                        |                  |
| 성          | 도 | 의                             | 교 제              |
|            |   | 다함께                           |                  |

2부 체육대회

|                              |         |              |
|------------------------------|---------|--------------|
| 수 요<br>예 배                   | 오후 7:30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1~11절) |         |              |

|                           |                                                                                                                                                                                                                                             |  |  |
|---------------------------|---------------------------------------------------------------------------------------------------------------------------------------------------------------------------------------------------------------------------------------------|--|--|
| 교회소식                      |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br>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br>3) 오늘 점심은 셀별/부서별로 드시기 바랍니다.<br>4) 주차 안내<br>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br>(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br>* 오늘 중앙대 주차권은 정용준 목사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br>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  |  |
| 2. 어 버 이 스 승<br>목 회 자 주 일 | 오늘은 어버이스승목회자 주일로 드립니다.<br>교회에서 목회자와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  |  |
| 3. 체 육 예 배                | 오늘 말씀은 김상헌 목사님께서 전해드립니다.                                                                                                                                                                                                                    |  |  |
| 4. 헌 신 예 배                | 다음 주일(19일) 오후 예배는 루디아 헌신예배로 드립니다.<br>* 강사: 한병수 목사(전주대 선교신학대학원 원장)                                                                                                                                                                           |  |  |
| 5. 생 수 제 공                | 체육예배를 위해 김기호 집사님께서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  |  |

|              |                                                                  |
|--------------|------------------------------------------------------------------|
| 한주간의<br>기도제목 |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br>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신앙의 삶이 되도록. |
|--------------|------------------------------------------------------------------|

찬송 :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통101)

본문 : 요한복음 1장 1~13절

말씀 : 크리스천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정도로만 대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과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이고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 1:9) 우리의 마음은 죄 때문에 원래 어둡습니다. 그런 어두운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밝아집니다. 내 안의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워집니다.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빛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밝혀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자 생명, 빛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깨달으며 믿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목

고우잉 홈(Going Home) (요 14:1~3, 히 13:13)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 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 예배 섬김이

|          | 오늘 섬기실 분    | 다음 주 섬기실 분 |
|----------|-------------|------------|
| 2부 예배 기도 | 조계승 장로      | 박영근 장로     |
| 2부 예배 헌금 | 김재준, 방성자 집사 | 오세영 집사     |
| 오후 예배 기도 |             | 루디아 헌신예배   |
| 주 방 봉 사  |             | 여호수아회      |

| 매일 Q.T. |                                                                                                                                                                                                                                                                    | 계속되는 내분과 갈등,<br>하나님 없는 위험한 권력 | 날짜 : 5월 13일<br>월요일 |
|---------|--------------------------------------------------------------------------------------------------------------------------------------------------------------------------------------------------------------------------------------------------------------------|-------------------------------|--------------------|
| 찬양      |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                    |
| 본문      | 열왕기상 16:15~28                                                                                                                                                                                                                                                      |                               |                    |
| 말씀요약    |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자 블레셋 깃브돈에 있던 백성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산을 사서 성을 건축해 사마리아라고 칭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해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다.                                                                                                       |                               |                    |
| 묵상질문 1  | 오므리의 반란 16:15~20<br>시므리는 어떻게 죽었으며,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혼돈 상황이 지속될 때 내가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북 이스라엘 왕 오므리 16:21~28<br>강력한 왕권을 세운 오므리가 하나님께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세상에서 박수받기를 더 원하지 않나요?                                                                                                                                                                   |                               |                    |
| 한절묵상    | 열왕기상 16장 22, 25절<br>하나님과 상관 없는 인간의 권력을 악을 더할 뿐입니다.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오므리는 북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습니다. 세상의 눈은 왕이 차지한 자리를 높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의 마음과 삶의 흔적을 평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마음을 낮추고, 힘을 가졌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희생과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세상적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제 삶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소서.                                                                                                                 |                               |                    |

| 개인 성경 공부 “믿음과 순종에 임한 은혜” |                                                                                                                                                                                                                                                                                                                                                                                                                                                                                                                                                                                                                                                       |
|--------------------------|-------------------------------------------------------------------------------------------------------------------------------------------------------------------------------------------------------------------------------------------------------------------------------------------------------------------------------------------------------------------------------------------------------------------------------------------------------------------------------------------------------------------------------------------------------------------------------------------------------------------------------------------------------|
| 찬양과 기도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새 382)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
| 묵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이야기 속으로                  | <p>남 아메리카의 한 부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부족의 언어로 쉽게 번역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 다. 특히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부족의 언어에는 ‘순종’을 뜻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고민하던 중에 선교사님이 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모든 마음을 다해라”라고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심부름을 떠나는 아 들에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본 선교사님은 ‘순종’이란 단어를 길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p> <p>순종은 결과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나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p> <p>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순종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나누어 보세요.</p> |
| 말씀나누기                    | 열왕기상 17:1~16                                                                                                                                                                                                                                                                                                                                                                                                                                                                                                                                                                                                                                          |
| 묵상포인트                    | 17장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왕,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하나님의 사람),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극심한 가뭄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그분의 보호를 받는 생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열방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
| 관찰과묵상                    | 엘리야가 북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만나 예언하며 경고한 것은 무엇인가요?(1절)                                                                                                                                                                                                                                                                                                                                                                                                                                                                                                                                                                                                           |
| 적용하기                     | 우상 사이에서 갈등한 경험, 하나님의 참되심과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선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 함께 기도하기                  |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
| 기도                       |                                                                                                                                                                                                                                                                                                                                                                                                                                                                                                                                                                                                                                                       |

| 매일 Q.T. |                                                                                                                                                                                                                                                              |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는<br>단호한 신앙 결단 | 날짜 : 5월 17일<br>금요일 |
|---------|--------------------------------------------------------------------------------------------------------------------------------------------------------------------------------------------------------------------------------------------------------------|----------------------------|--------------------|
| 찬양      |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                    |
| 본문      | 열왕기상 18:1~15                                                                                                                                                                                                                                                 |                            |                    |
| 말씀요약    | 많은 날이 지난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악한 이세벨로부터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양식을 제공한,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다는 말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나, 엘리야는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라고 맹세하며 말합니다.                                                                                                |                            |                    |
| 목상질문 1  | 아합을 만나러 가는 엘리야 18:1~6<br>이합의 신하인 오바댜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 기독교를 드러내 놓고 비방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                            |                    |
| 목상질문 2  |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 18:7~15<br>엘리야의 존재를 아합에게 알리라는 말에 오바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목상    | 열왕기상 18장 3~4절<br>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분의 사람을 세워 일하게 하십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학살할 때 오바댜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로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분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말씀의 길에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맛보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신앙을 버리고 부를 선택한<br>어리석은 지도자 | 날짜 : 5월 14일<br>화요일 |
|---------|------------------------------------------------------------------------------------------------------------------------------------------------------------------------------------------------------------------------------------------------------------|----------------------------|--------------------|
| 찬양      |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                            |                    |
| 본문      | 열왕기상 16:29~34                                                                                                                                                                                                                                              |                            |                    |
| 말씀요약    | 오므리가 죽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22년간 다스립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아사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합니다. 히엘은 여리고를 건축한 일로 맏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                    |
| 목상질문 1  | 북 이스라엘 왕 아합 16:29~33<br>아합은 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나요? 물질이나 권력의 유혹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
| 목상질문 2  | 여리고 재건과 하나님의 심판 16:34<br>히엘은 왜 여리고를 건축하려 했을까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목상    | 열왕기상 16장 34절<br>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심판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수 6:26). 히엘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필요한 비상용이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정황에 필요한 상시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곳에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제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부나 명예에 있지 않고 철저히 신앙에 근거함을 깨닫습니다. 헛된 욕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제 죄가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가지 않도록 온전히 돌이키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br>은혜의 기적 | 날짜 : 5월 15일<br>수요일 |
|---------|-----------------------------------------------------------------------------------------------------------------------------------------------------------------------------------------------------------------------------------------------------------------------|------------------------|--------------------|
| 찬양      |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                    |
| 본문      | 열왕기상 17:1~16                                                                                                                                                                                                                                                          |                        |                    |
| 말씀요약    |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까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시내가 마르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공계를 받습니다. 과부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                    |
| 묵상질문 1  | 가물을 예고한 엘리야 17:1~7<br>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릿 시내로 보내셨나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신 은혜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사르밧 과부에게 베푼 기적 17:8~16<br>사르밧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주었을까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열왕기상 17장 2, 4절<br>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 안에 온전히 담을 수 없고, 논리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믿음'과 결부되어야 합니다(히 4:2).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추구할 의로운 삶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제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만물을 움직여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에 제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죽은 아이를 살리신<br>하나님의 권능 | 날짜 : 5월 16일<br>목요일 |
|---------|------------------------------------------------------------------------------------------------------------------------------------------------------------------------------------------------------------------------------------------------------------------|-----------------------|--------------------|
| 찬양      |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                    |
| 본문      | 열왕기상 17:17~24                                                                                                                                                                                                                                                    |                       |                    |
| 말씀요약    |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과부는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 왔느냐고 엘리야에게 항변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눕힌 후 그 위에 몸을 세 번 얹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에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                       |                    |
| 묵상질문 1  | 사르밧 과부 아들의 죽음 17:17~20<br>사르밧 과부는 아이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연결 지었나요? 은혜의 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행을 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                       |                    |
| 묵상질문 2  | 다시 살아난 아들 17:21~24<br>아이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에 과부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최근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                       |                    |
| 한절묵상    | 열왕기상 17장 21~22절<br>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야는 자신의 몸은 퍼서 아이 위에 세 번 얹드리며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맞바꾸어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롬 4:17). 엘리야의 행동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 중에도 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                    |